



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
관계부처 합동

보 도 참 고 자 료

2월 7일 (수) 조간 보도

배 포 일

2018. 2. 5. / (총 7매)

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	일·생활 균형팀	과 장	오 은 경	02-2100-1227
		사무관	최 재 윤	02-2100-1228
	문화혁신팀	과 장	김 민 아	02-2100-1220
		서기관	이 상 범	02-2100-1222
고용노동부	여성고용 정책과	사무관	김 경 환	02-2100-1221
		과 장	김 종 철	044-202-7470
	고용문화 개선정책과	서기관	박 병 기	044-202-7473
		과 장	여 성 철	044-202-7496
	근로기준 혁신추진팀	사무관	장 유 은	044-202-7467
		팀 장	황 효 정	044-202-7543
여성가족부	가족정책과	사무관	곽 철 홍	044-202-7546
		과 장	김 숙 자	02-2100-6321
	가족문화과	사무관	이 승 욱	02-2100-6332
		과 장	김 성 철	02-2100-6361
보건복지부	아동권리과	사무관	이 준 호	02-2100-6365
		과 장	임 대 식	044-202-3430
교육부	방과후돌봄 정책과	주무관	박 영 호	044-202-3439
		과 장	박 지 영	044-203-6745
		사무관	박 은 정	044-203-6412

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,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 함께 지원한다.

-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중심으로 노동부, 교육부, 여가부, 복지부 협업-
- 입학기 10시 출근 확산, 수업 후 돌봄 공백 사각지대 해소 -

① 초등학교 입학기 한 달간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

- 10시 출근 확산, 자녀돌봄휴가제도(연 10일) 신설

② 초등돌봄교실 확대(맞벌이, 한부모, 저소득 가정 위주), 초등돌봄교실 탈락한 초등 1학년 대상으로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

- 아이돌보미, 공동육아나눔터,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돌봄 확대

③ 감염질환 발생 아동, 아이돌봄 특별지원 확대

- 아이돌보미 확충, 긴급돌봄 최우선 매칭, 아동 병원이용 동행서비스 실시

□ 대통령 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(위원장: 대통령, 이하 “위원회”)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
□ (10시 출근) 우선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,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, 입학기 10시 출근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출·퇴근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주에게 적극 안내·활용토록 하고,

- 앞으로 자녀돌봄휴가제 도입*,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1~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며, 기업 참여 캠페인도 실시한다.

*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하여, 휴가 사용 사유에 자녀 돌봄 추가, 사용 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로 사용 허용

□ (학교 돌봄)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에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민원담당관제를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운영하여 돌봄수요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.

□ (지역 돌봄)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학교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,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통해 입학기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.

- 또한 입학기 이후에도 초등돌봄의 공백을 완화하고, 수업 후 부모 퇴근 때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육부,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.

□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,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(휴가)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중에 발표하고,

- 일상생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소소한 사항도 적극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.

□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.

【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부모, 10시 출근 확산 】 (노동부, 기재부)

- 민간기업은 노·사 단체와 협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, 유연근무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,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이 어려울 경우,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.

◇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 일2~5시간 단축 가능 <10 to 1~5>

* (근로자) 통상임금의 80%를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지원, (사업주) 월10~20만원 지원

◇ (유연근무)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여 10시 출근 <10 to 7>

-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유급 휴가를 주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도모델로 홍보,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면서,
 -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(주35시간 근로)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,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*하는 방안도 마련한다.

*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, 간접노무비 월 20만원(중소·중견기업)

- 또한, 공공기관은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,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 휴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.

* 공무원은 시간단위 연차사용 및 유연근무 활용 계획(근무혁신종합대책, '18.1.16)

- 나아가 「남녀고용평등법」을 개정하여,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한다.
 -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 돌봄을 추가하고,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.

<자녀돌봄휴가제도 개편방안(남녀고용평등법 개정)>

현행	개정안
가족돌봄휴직제도	+ 자녀돌봄휴가제도 추가
가족 질병·사고·노령 사유만 인정	+ <u>자녀 양육 사유</u> 추가
연간 90일 :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	<u>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 사용</u>

【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】 (교육부, 복지부, 여가부)

- 초등돌봄교실, 지역아동센터, 아이돌보미,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.

<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 돌봄 방안>

구분	이용 가능 인원 전망	3월	3월 이후
초등돌봄	12만 명	계속 운영	
지역아동센터	1.2만 명	계속 운영	
1 대 2~3 아이돌봄	2,500 명	한시적 시범 운영	
공동육아나눔터 돌보미 파견	500 명	한시적 집중 지원	

* 3월 중순부터 방과 후 학교 개설, 학교 밖 돌봄 수요 일정수준 감소 전망

-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필요한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, 2월부터 3월까지 학교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여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.
- 또한,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중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했으나 교실 부족, 정원 초과 등으로 선정되지 않아 방과 후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맞벌이, 한부모,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.

①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 (2.1~)

- 2월부터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현행 10%에서 20%로 늘리고,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보도록 추진한다.

* (현행) 취약계층 90%, 소득수준 무관 10% → (개선) 취약계층 80%, 소득수준 무관 20%

② 「1 대(對) 2~3 돌봄 서비스」 시범 실시 (3.5~3.30)

-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2~3명의 서로 다른 가정 아동을 돌보는 「1 대 2~3 돌봄 서비스」를 시범실시하여 현행 「1 대 1 아이돌봄」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* (현행) 1 대 1 → 1 대 2~3 아이 돌봄 허용

** (1 : 1 아이돌봄) 1인 당 본인부담 7,800원/h > (1 : 2) 5,850원/h > (1 : 3) 5,200원/h

③ 공동육아나눔터 등 한시 돌봄 (3.5~3.30)

- 돌봄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 내 다양한 돌봄공간을 확보,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3월 한 달간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며,
- 한시 시범 운영임을 감안해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 위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.
- 「1 대 2~3 돌봄서비스」와 「공동육아나눔터 한시돌봄 지원」은 2월 중순 이후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.
- 각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에 선정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,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희망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.
- * 서비스 가능 지역, 신청방법, 절차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재안내 예정

【 감염질환 발생 아동, 아이돌봄 특별 지원 】 (여가부)

-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하여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.
- 올해 중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충원하여 질환 발생*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며, 감염질환이 발생한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「병원 동행 서비스」도 제공할 계획이다

* 법정 전염성 질병(예: 수족구 등), 유행성 질병(예: 감기·눈병 등) 등

□ 위원회는 초등학교 입학기 돌봄 부담 해결을 위한 현장 소통 행보를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.

- 우선 2.6일에는 김상희 부위원장 주재로 「자녀돌봄 지원 우수기업 간담회」를 개최하여 일·생활 균형이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,

- 2월 26일에는 초등돌봄교실·공동육아나눔터·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이 참여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해결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.

□ 장윤숙 위원회 사무처장은 “이번 대책은 「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」의 일환으로,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정책을 연계, 미세 조정하여 오는 3월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”이며,

- “법률 개정, 예산 수반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 추진계획은 3월 중 발표하고, 하반기에는 「제3차 기본계획」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□ 김상희 부위원장은 “육아기 자녀는 부모 뿐 아니라 정부,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”고 전하면서, “앞으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하여,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* 붙임 : 「자녀돌봄 지원 우수기업 간담회(2.6)」 개요

□ 일시: '18.2.6.(화), 14:00~15:40

□ 장소: 중기중앙회 회의실(5층 귀빈실)

□ 참석 대상

○ (기업 관계자) 중기중앙회 부회장, 중소기업* 사업주(임원)

* 일·생활균형 우수 중소기업(6개 기업)

○ (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) 부위원장, 사무처장 등

○ (관계부처) 노동부, 복지부, 여가부, 교육부 등

□ 주요 내용

○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지원 정책 설명

○ 기업별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지원, 일·생활균형 우수사례 발표·공유

○ 일·생활균형 제도 도입 및 활용 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수렴

□ 세부 일정(안)

시 간	주요 내용	비 고
14:00~14:10(10')	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지원정책 설명	부위원장
14:10~14:50(40')	참석기업별 일생활균형 우수사례 발표·공유	기업 관계자
14:50~15:20(30')	자녀돌봄 지원 등 일생활균형 확산 현장 의견수렴	자유토론
15:20~15:25(05')	일생활균형 문화 관련 중소기업계 현황 말씀	중기 부회장
15:30~15:40(10')	마무리 말씀 및 기념 촬영 등	부위원장